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소식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2월호를 남풀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 2월 월식 예배는 2월 1일 “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 2월 가정별 기도카드는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학교 개강 안내

2026년도 한글학교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 * 개강일시: 1/31(토) ~ 16주간, 오전 9시부터 12시
 - * 대상: K(5세) - 12학년, 성인반 (Adult Class)
 - * 한글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도 모집합니다.
- 문의: 김 경 집사/ 954-328-5187

• 성가 대원 모집

1부(호산나), 2부(헬렌루아) 성가대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에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 문의- 심성애 권사 / 954-646-5452

• 재정부 안내

2026년도 비용 지출 신청서가 새로 작성 되었습니다. 2025년도 지출 항목 코드가 변경 되었으므로 새로 변경된 지출 신청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보고를 위한 현금 내역서 안내

세금보고를 위한 2025년도 현금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본당로비 비치)를 작성하셔서 현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동정

[등록] 신민영 성도님 (남편: Steven Kao, 아들: Justin 준호) 가정이 (949-204-9977) 새가족 으로 등록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풀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난주 현금 통계 : 총 합계 \$41,057.00

일반현금 \$16,027.00	십일조: \$6,515.00	일반감사.부흥감사: \$5,480.00
건축현금 \$5,030.00	약 정: \$5,030.00	기 타: \$1,145.00
선교현금 \$20,000.00	중남미: \$20,000.00	

** 온라인 현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5권 04호

2026년 1월 25일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남풀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주현절 셋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찬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시도신경

찬송 Hymn / 250장(통182)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기도 Prayer / 진애주 권사

찬양 Choir / 호신나 찬양대

- 주께서 주신 하늘노래 -

교회소식 Announcement

2부(10:30am)

인도자 Presider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주의 능력 보이소서,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시여.

기도 Prayer / 정성엽 장로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주께서 주신 하늘노래 -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

A person who pleases God

▲ 파송찬송 Closing Hymn/ 나는 믿네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1월/2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1월 25일	1부	#8 목장	담당자	진애주권사	갈렙목장
	2부			정성엽장로	
다음주 2월 1일	1부	Ok목장	담당자	이현숙권사	물댄동산목장
	2부			윤훈로권사	

설교요약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는 계획에 없던 도시였습니다. 그는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의 인도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고,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치유의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계획하지 않은 길로 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행을 예로 들면,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떠난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간 길이 아니었고, 이미 고난과 박해를 경험한 상태에서 데살로니기에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엇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니니” (데살로니가전서 2:1)

바울에게 “엇되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나 결과가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고백입니다 (2:2).

여기서 중요한 점은 ** “하나님을 힘입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 담대해졌다는 강력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문제의 자리에서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은 박해와 감옥,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감정이나 자존심으로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과 상처를 힘입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과 고난은 복음으로 연결되는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

<설교 요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4~15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밭은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전도팀에서 벤을 운전하여 팀을 전도 현장에 데려다주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꼭 강단에 서서 설교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맡았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삶의 편안한 구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서 매를 맞고, 치유의 현장에서는 능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걸어온 길이 눈물과 어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을지라도 엇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람은 몰라주었을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싸움이 복음을 불드는 싸움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간증이요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소그룹 나눔 질문

1) 최근 내 삶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2) 나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감정이나 자존심에 의지해 싸운 적은 없었나요?

3)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나요? 변화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느꼈나요?

4)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금주 예찬 섬김

	금주 (1월 25일) 김달숙, 김종호권사		다음주 (2월 1일) 범사감사
			갈렙목장 물댄동산목장